

韓半島와 滿洲의 地緣과 人緣

學會長 洪 始 煥

I. 서론

우리 韓國과 中國의 國交修交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韓半島와 中國東北地方인 滿洲와의 歷史的인 相關的, 血緣的 이고도 地緣的인 입장에서 史學 專攻도 아닌 地理學 專攻인 凡夫의 위치에서 몇 글자 적기로 한다.

II. 地緣과 人緣으로 엮힌 두 地域

1. 隣接된 地緣

中國의 東北地方이란 말보다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滿洲 땅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그 옛날 植民地 時代에는 植民地 統治를 반대했던 우리 先烈 先輩들 그리고 억압적인 日帝의 탄압에 못이겨 “移滿”하면 산다. 즉 滿洲로 가기만 하면 산다면 異國 땅 滿洲로 滿洲로 도망가고, 피신해 갔던 것이 바로 엇그제 같다.

따라서 東北 中國보다는 역시 滿洲라고 부르는 것이 친근감을 지니게 된다. 참으로 人緣關係 보다도 地緣關係가 이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人緣을 맺어주게 했는가 보다.

즉 韓半島와 滿洲 땅은 서쪽에서는 鴨綠江, 동쪽으로는 豆滿江의 물줄기 하나로 경계짓고 있다. 그나마 冬季節에는 강물이 얼어버려 소달구지도 이 國境河川인 鴨綠江과 豆滿江을 건너다닐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뿐이랴?

豆滿江 水系에서는 강폭이 50m 내외로 특히나 圖門 앞에서 遊覽船을 띄어 놓고 놀다보면 北韓 땅까지는 5~10m도 안되는 상태이니까 말이다.

이러니 두 地域, 두 國家 사이의 地線은 두 말할 나위 없는 밀접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물줄기의 始發地가 바로 白頭山이다. 長白山脈의 主峰을 이루고 있는 이 白頭山은 中國에서는 長白山이라고 부르고, 우리 韓國側에서는 白頭山이라 부르고 있다.

참으로 白頭山은 우리나라의 靈山이오 宗山이오 巖主山이다.

이 火口湖인 天池를 받들고 있는 白頭山 山地로 부터 南으로 西南으로 四方으로 뻗어 내리고 있는 山地들이 우리 韓半島의 동뼈가 되고있는 嶺林山脈이며 威鏡山脈 그밖에 根幹 山地를 이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韓半島는 허허 벌판인 滿洲平野를 배경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고 있는 韓半島이기 때문에 그 地勢나 地貌로 보아 滿洲벌 찬바람 찬기운이 그냥 그대로 우리땅에 밀어 닥치고 있다.

이와같이 滿洲와 韓半島는 하나의 地理 地域으로 묶여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번 韓國動亂때만 하더라도 손쉽게 난데없이 八路軍이 남침해 올 수 있었던 사실도 그 地理的 位置 價値가 매우 유리했었기 때문이며 그와같은 在來式 兵法의 구사로 우리에게 威脅을 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두 나라 사이에 또다시 이와같은 일이 있었어도 안되겠지만 두 地域이기 때문에 항상 友好的인 相關性을 지녀야 하겠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2. 얽혀있는 人緣

한편 地緣뿐만 아니라 人緣 나아가서는 血緣적인 차원에서도 滿洲땅과 우리 韓半島 즉 扶余族과 배달민족 간의 관계는 그대로 한줄기로 묶여 있다고 하겠다.

그옛날 滿洲땅 扶余의 一族인 高句麗의 始祖 朱蒙은 東扶余 金蛙王의 庶子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나중에 東明聖王으로 불리우게된 朱蒙은 扶余王國에서 쫓겨나 松花江 上流를 거슬러 鴨綠江 上流地域에 머물고 있다가 그후 下流 地域인 지금의 樞安에 자리 잡았고 나중에는 마침내 B.C 37년에 高句麗의 立國을 선언하고 이후 28代 총 705년간의 大國으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그 발판땅이 바로 南滿洲 地域과 北韓 地域이 아니었던가.

참으로 이 滿洲땅 주변지역에서 渤海族의 “大” 契丹族의 “遼”, 女眞族의 “金”, 蒙古族의 “元”, 滿洲族의 靑나라 등이 이땅을 터전으로 하였는바 역시 高句麗 또한 이에 못지않은 아니 보다 찬란한 民族文化와 傳統을 기리 남기게한 나라를 이룩해 왔었음도 역시 地緣과 人緣이 얽힌 밀접한 相關性에 유래된 것이라고 하겠다.

Ⅲ. 韓半島 北方文化의 盛衰

여하튼 南滿洲와 北韓땅을 바탕으로 이룩한 高句麗의 발전은 우리가 歷史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기야 막강한 高句麗도 北으로 부더의 外敵 侵略을 받은 國亂의 歷史는 크게 세차례나 있었기는 하나 결국은 建國 370년에 鴨綠江 沿岸의 樞安에서 平壤으로 남하한 후 南으로 그 세력을 뻗쳐 南쪽은 慶北땅 烏嶺과 忠北 땅의 竹嶺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北으로는 母國인 扶余를 항복시켰고 특히 가

장 번영하였을 때에는 韓半島의 過半 地域, 滿洲땅 遼河 以東의 南滿洲 平野地域, 吉林, 長春 平野에서 멀리 시베리아 沿海州 땅까지에 國土를 넓혔던 時代도 있었던 大國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방적인 國力 發展에 시기하게된 中國 本土의 隋文帝, 隋煬帝들의 네차례에 걸친 侵略을 받아왔기는 하나 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이은 唐太宗의 끈질긴 來侵도 있었으나 역시 대응격퇴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는 이와같은 外勢에 대응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內治를 소홀히 한탓으로 內敵이 늘어나 마침내 唐나라와 內通한 부하들의 반역으로 平壤城도 떨어져 드디어 西紀 668년에 멸망의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IV. 맺음말

참으로 이와같이 鴨綠江 流域에서 자리잡았던 扶余族 1000년의 유구한 北方文化는 그 터전을 잃게되고 韓半島 南部를 거쳐 日本 列島로 스며들게 되었다.

이와같은 찬란하였던 北方文化의 遺蹟은 오늘날 滿洲땅의 樸安과 韓半島 平壤땅 各地에서 찾아볼 수 있음은 그대로 中國 長春터전의 扶余王國과 韓半島 平壤땅의 高句麗 王國이 계속적으로 깊은 血緣的이고도 地緣的인 相關性의 所産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特記하여야 할 것은 이 扶余族이 지니은 農耕文化精神이 1000여년의 國力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隣接地域, 國家, 民族들에 대한 對外侵略이 없었던 사실은 평화적이고도 타협적인 國家 政策과 民族精神을 지니은 農本主義 民族思想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韓半島文化 뿐만아니라 멀리 日本 列島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한 大陸文化도 이 大陸에의 關門이오 韓半島를 통한 太平洋에로의 關門이라고

할 수 있는 平壤땅, 高句麗땅을 경유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佛敎를 西紀 337年에 받아들였고 다시 일찌기는 中國 本土로 부터 그 당시 성행하였던 陰陽五行說의 도입, 五部官制의 시행 등을 통하여 北으로는 黑龍江 일대에서 南으로는 百濟, 新羅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日本 列島에 이르기 까지 파급시키고 전달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다.

참으로 이 高句麗의 터전인 鴨綠江 流域과 韓半島西北 地域의 접속된 地理的 位置 價値가 바로 이와같은 緊密性, 相關性을 갖어 왔으며 오늘과 같은 아니 未來에도 계속적인 유대를 맺는 不可分의 人緣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겠다.